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인문학 및 보존과학 조사 결과보고서

2024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인문학 및 보존과학 조사 결과보고서

목 차

- 인문학 조사 결과
- 보존과학 조사 결과
- 사진자료
- 도면자료
- 학술·고증자료
-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 보존 정비·활용계획

1

인문학 조사 결과

은적사의 연혁과 문화유산

• 설림산 은적사의 연혁

은적사(隱寂寺)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3길 49 설림산 자락에 자리한 사찰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 말사이다. 은적사는 613년(백제 무왕 14, 신라 진평왕 35) 신라 원광법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52년(고려 광종 3) 정진국사가 중창했으며, 1373년(공민왕 22)에는 나옹이 2차로 중창했고, 1781년(정조 5) 보경선사가 중건, 1937년 허웅 선사가 중건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중창과 중건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군산 은적사 전경

은적사는 천방사(千房寺), 선림사(禪林寺) 등으로도 불리었다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4 전라도 옥구현(沃溝縣) 불우조(佛宇條)에는 천방사와 관련해서 신라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창건 설화가 언급되고 있다.¹⁾ 천방사는 후에 선림사로 불리우다가 고려 숙종(肅宗)때 증수하고 불상을 안치하면서 다시 원래의 이름을 되찾았다고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四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4 전라도 옥구현



1724-1776년 <해동지도(海東地圖)>



1737-1776년 <광여도(廣輿圖)>

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4 全羅道「沃溝縣」佛宇條, “佛宇 千房寺 在千房山 有李膺挺重修記 諺傳新羅將金庾信欲攻百濟 請兵于唐 唐使蘇定方將船卒十二萬 來泊于山下 煙霧蔽暗 天地晦暝 禱于山靈: 若使開霽 當建千寺以奉佛 即日天地清明 因登山周覽勢甚窄狹 不可建千寺 只排十石 以象寺形 建一寺號千房 後改稱禪林 高麗肅宗時 遣近臣重修 安佛像 今復號千房”.

18-19세기에 간행한 지리지와 고지도를 살펴보면 당시에 은적사가 옥구현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24-1776년 『해동지도(海東地圖)』 나 1737-1776년 『광여도(廣輿圖)』에는 설림산 아래에 ‘은적암(隱寂庵)’이 표기되어 있으며, 『여지도(輿地圖)』나 『지승(地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1872년 지방지도에서는 ‘은적사(隱寂寺)로 표기되고 있어, 사격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지도 자료를 통해 은적사의 법등이 조선후기까지 잘 유지되었음이 확인된다.



조선후기<여지도(輿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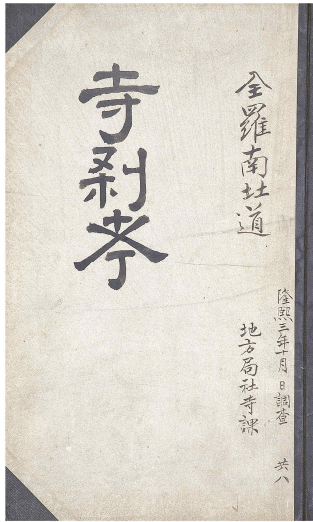
조선후기 <지승(地乘)>



1872년 지방지도

근대 이후 은적사와 관련된 기록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문서 가운데 『사찰고(寺刹考)』에서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909년(隆熙 3) 내무부 소속 지방국사과(地方局社課)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은적사는 전라북도 옥구부(沃溝府) 설림산(雪琳山)에 위치하며, 본존불은 아미타불(阿彌陀佛), 관리자는 인화(仁和)이다. 사찰 소유 논답으로 사찰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는 2명이며, 개국 392년 갑진(甲辰)에 중창(重創)하였다고 적고 있다.

현재 은적사 대부분의 전각들은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중창 불사를 통해 건축되었으며, 대웅전, 극락전, 칠성각, 진영각, 산신각, 시왕전, 종각 등의 전각이 확인된다. 은적사는 근래까지 꾸준한 불사를 통해 사세를 이어오고 있다.



備考	沿革	及僧 區數 別數
		僧三 開國之百九十年甲辰四月辛酉創置

全羅北道沃溝府隱寂寺		所在道	曹球山
宗派	阿彌陀佛	本管佛名	仁和
管理者	序戶引差保善	僧地者	
管理方法		管理方法	
管理及	卷六十三年隱寂寺寺務司收入三三羅特	管理及	
方		法	

『사찰고』, 「전라북도 옥구부 은적사」

• 은적사의 문화유산

[군산 은적사 목조아미타불좌상(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은적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2015년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발원문을 통해 1666년 조각승 혜정(惠淨)이 조성하여 김제 금산사에 봉안한 불상임이 밝혀졌으며, 불상의 이운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현재는 금산사 말사인 은적사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은 몸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며,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인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육계의 구분이 크게 없는 머리는 다소 큼직한 나발로 덮여 있으며, 정수리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 머리 중앙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를 표현하였다. 어깨는 약간 굽은 듯한 모습으로 둥글게 표현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입고있는 법의가 두껍고 주름이 여러 겹으로 중첩된 형태로 묘사하였다.

조각승 혜정은 17세기의 여러 조각승들과 함께 불상 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각승 희장과 함께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1650)을 조성했으며, 조각승 녹원과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1655), <서울 지장암 목조지장보살좌상>(1664)을, 또한 조각승 도우의 <칠곡 송림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1657) 조성에도 참여한 기록이 남아있다. 수화승으로 주도하여 조성한 불상은 2건으로 <군산 은적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60)과 <부산 연화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76)이 전해지고 있다.



군산 은적사 목조아미타불좌상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일반현황

명 칭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대상물 구분	유물 / 불교조각 / 목조 / 불상	
용 도	신앙과 예배의 대상	
수 량	3구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3길 49, 은적사	
구조 및 규모	석가여래좌상 : 높이 111.0cm, 무릎폭 75.0cm 문수보살입상 : 높이 112.0cm, 무릎폭 68.5cm 보현보살입상 : 높이 112.0cm, 무릎폭 68.0cm	
소유자 (관리자)	성명 (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은적사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3길 49, 은적사

- 조성연대 : 조선후기(1629년)
- 조성경위 :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서는 원래 불상이 어디에서 조성되었고 봉안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증의 전언에 의하면 김제 금산사(金山寺) 인근의 사찰에서 옮겨왔다고 전해진다. 1937년 허웅선사가 은적사를 중창할 당시 이미 법당에 봉안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20세기 초반에 이운된 것으로 추정된다.
- 보관(관리)현황 :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은 현재 은적사 대웅전 내 불단에 봉안되어 있다.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양식적 특징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석가여래, 문수보살, 보현보살로 이루어진 삼존상이다. 삼존상 모두 탄력적인 상호와 건장하고 양감있는 불신으로 묘사되었으며, 이에 비해 하반신은 다소 낮은 편이다. 높이가 낮은 하반신은 17세기 전반 조성된 불상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서는 원래 불상이 어디에서 조성되었고 봉안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증의 전언에 의하면 김제 금산사(金山寺) 인근의 사찰에서 옮겨왔다고 전해진다. 1937년 허웅선사가 은적사를 중창할 당시 이미 법당에 봉안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20세기 초반에 이운된 것으로 추정된다.²⁾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2) 송은석, 「法靈派 彫刻僧과 佛像 - 法靈, 惠熙, 祖能」(『불교미술사학』5, 불교미술사학회, 2007), p. 185.

주존인 석가여래좌상은 왼손은 무릎 위에 손바닥을 보인 채 살짝 들어올리고, 오른손은 손등을 위로 하고 아래를 향해 펼친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다. 얼굴은 살짝 앞으로 숙인 모습으로 시선은 정면보다 살짝 아래를 굽어보고 있다. 머리는 육계와 구분이 불분명한 모습으로 굽은 나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수리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 머리 앞 중앙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를 표현하였다. 얼굴은 위아래로 긴 장방형으로 뺨과 턱의 살집을 부드럽고 양감있게 조각하였다. 석가여래좌상은 변형편단우견의 대의를 착용하였다. 왼쪽 어깨에 걸쳐져 팔을 따라 흘러나온 옷자락의 형태는 17세기 불상 중에서도 법령의 불상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왼쪽 어깨에 걸친 대의가 상박으로 늘어지면서 끝자락은 왼팔 하박 중간에 걸쳐지는데, 은적사 석가여래좌상의 경우 흘러내린 옷자락이 하박을 넘어 바닥으로 길게 늘어지는 모습으로 표현된다.³⁾ 양감있는 상체에 비해 하반신은 낮게 표현되었으며, 옷주름은 중앙의 넓은 띠를 중심으로 좌우 바깥쪽을 향해 깊고 가파르게 조각된 굽직한 옷주름 층이 강조되었다. 무릎의 높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가부좌한 발이 무릎 위에 폭 파묻힌 듯한 묘사는 풍성한 옷자락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옷자락의 넉넉하고 풍성한 표현은 등 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등 뒤로 넘긴 대의자락의 두께나 오른팔 뒷부분과 등 부분의 접힌 옷자락 표현이 법의의 두께감을 잘 묘사하고 있다.



목조석가여래 좌상(본존)



목조석가여래 좌상(본존) _ 상호

3) 송은석, 「法靈派 彫刻僧과 佛像 - 法靈, 惠熙, 祖能」(『불교미술사학』5, 불교미술사학회, 2007), p. 187.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_ 우측 팔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_ 좌측면 대의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_ 배면 옷주름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_ 하반신

좌협시와 우협시는 석가여래좌상과 얼굴이나 전체적인 신체 표현 등은 유사하지만, 수인이나 지물, 착의표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협시보살상의 수인 등이 대칭형으로 구성되었으며, 높이 들어올린 손이 바깥을 향한 형태이다.

먼저 좌협시 문수보살좌상은 엄지와 중지를 결한 왼손을 높이 들어올리고 오른손은 낮게 들어 연꽃가지를 비스듬히 쥔 모습이다. 우협시 보현보살좌상과는 정 반대로 본존을 중심으로 대칭 형태의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굴의 형태나 살짝 구부정한 자세 등 전반적인 묘사는 본존인 석가여래좌상과 유사하다. 문수보살좌상은 복견의와 대의를 모두 착용하여 석가여래좌상과는 달리 오른팔이 대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다. 귓볼에는 원형의 화형 귀걸이가 있으며, 양쪽 손목에는 띠 형태의 팔찌를 착용했다. 보살상의 보관은 후대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수리에는 상투와 상투를 고정하는 장식대를 함께 묘사했다. 머리 앞에는 상투를 감싸는 넓직한 판재 부착하였는데, 불상 조성 당시부터 있었던 것인지 후대 보수시 추가된 것인지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양쪽 귀 앞으로 흘러내린 보발은 어깨 위에서 매듭지어 세 갈래로 나뉘어져 흘러내리는 형태로 묘사했다. 하반신의 옷주름은 석가여래좌상과 유사하며, 중앙으로 흘러내린 넓은 옷주름을 중심으로 무릎 방향으로 깊고 가파른 요철의 옷주름을 조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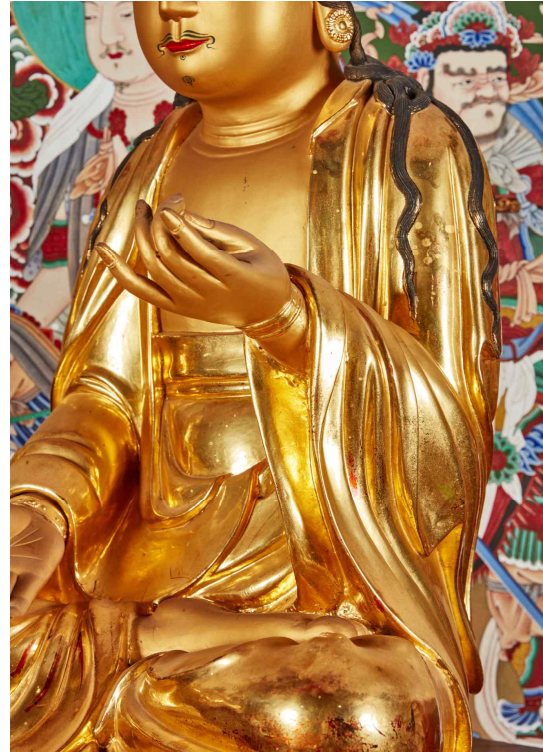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_ 상호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_ 상투 및 판재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_ 상반신 옷주름

우협시 보현보살좌상은 문수보살좌상과 전체적인 규모와 상호가 유사하고, 수인과 지물이 대칭형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보현보살좌상은 복견의와 대의를 착용한 문수보살좌상과 달리 천의를 착용하여 차이를 보인다. 상반신은 짧은 솔 형태의 겹옷을 걸쳤는데, 옷 사이로 상박에 착용한 띠 형태의 장신구와 함께 양 팔이 흰히 드러나 있다. 양쪽 손목에도 비슷한 형태의 장신구가 표현되었다. 하박에는 가느다랗고 긴 형태의 천의자락이 팔을 감싼 모습을 별재를 사용해 조각하였다. 겨드랑이 안쪽에서 시작된 천의자락은 하반신 측면에 길게 걸쳐졌다가 손목을 한번 휘감고 무릎 옆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자연스럽게 유려한 형태의 천의자락으로 인해 보현보살좌상의 장식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보현보살좌상 복부 중앙의 이중 화형복갑(花形腹甲) 장식은 보살상을 구성하는 장식요소 중 가장 화려한 부분으로, 복갑 위로는 요의를 고정하였다. 문수보살좌상과 마찬가지로 보관은 후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투를 감싸는 넓은 판재를 머리 앞에 부착하였다. 상투는 문수보살좌상과 달리 하단부에 고정 장식대가 없으며, 상투 아래를 한바퀴 보발로 감싼듯한 형태를 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_ 상호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_ 천의표현(좌)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_ 천의표현(우)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_ 하반신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_ 복부 복갑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상호 표현이다. 삼존상 모두 장방형의 긴 얼굴형을 하고 있다. 눈썹에서 코로 이어지는 선을 부드럽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이목구비를 둘러싸고 있는 뺨과 턱의 살집을 도톰하게 표현하였다. 가느다란 입술은 굳게 다물린 모습으로, 마치 입에 뭔가를 머금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상호 표현은 조각승 법령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상호 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옷주름 표현방식이다. 옷자락은 불신에 밀착되어 있지만, 몸의 굴곡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두껍고 옷깃이 여러 번 접혀 중첩된 듯한 풍성한 형태감을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조각의 요철이 깊고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옷주름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법령의 영향을 받은 조각승 혜희나 조능 등의 조각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각승들이 본격적으로 유파를 이루어 활동한 시기는 17세기 전반부터이다.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 법령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조각승들과의 비교를 통해 법령의 조각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7세기 전반부터 광범위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은 현진, 청현, 응원, 인균, 수연 등이 있으며, 법령과의 비교를 위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고, 각 조각승이 가지는 고유한 양식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조각승 현진(玄眞)은 1612-1637년에 걸쳐 약 10건의 불상이 확인된 17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현진이 조성한 불상은 초반에는 좁고 예리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후기에 조성된 불상은 넓적하고 각진 턱에 순박한 상호를 하고 있다. 불신은 거대하고 중량감이 있는 장대한 형태로 묘사되며, 대의는 두껍게 표현되었다. 하반신은 낮은 편이며, 옷주름은 납작하고 규칙적인 주름을 보인다. 은적사 목조석가여

래삼존좌상과 같은 연대인 1629년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을 살펴보면 현진의 이러한 조각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7세기 전반에 활약했던 조각승 인균은 1615년부터 관련 기록이 확인되며 1655년까지 불상 제작에 참여했던 조각승이다. 인균의 불상은 양감이 강조된 건장한 신체와 살집이 올라있는 특유의 얼굴표현이 특징이다. 특히 뺨과 턱 사이를 넓고 우묵한 음각으로 구분하여 뺨과 턱의 양감을 강조하였다. 신체 표현의 경우 대의는 두껍게 묘사하는 반면, 옷주름은 유려하고 부드럽게 묘사하고 조각적 깊이는 얇게 하여 옷 안의 불신이 잘 드러나도록 했다. 이는 두텁고 높낮이가 강조된 법령의 불상 법의 표현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균의 조각적 특징은 1633년 조성된 <김제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여래좌상>에서 잘 드러난다. 인균은 팔이나 손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양감을 강조하여 약간 토실토실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 법령의 은적사상을 보면 팔이 얇고 직선적으로 표현되어 차이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17세기 전반 활발하게 활동했던 조각승 수연의 불상을 비교대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수연은 1619년에서 1639년까지 약 5건의 작품이 확인된다. 은적사상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1623년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을 살펴보면 수연의 조각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수연 불상의 얼굴은 발제선과 턱의 양 끝이 직각이고 얼굴 길이가 짧아 얼굴형이 정사각형에 가깝다. 신체는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는 비교적 빈약하며, 옷주름은 전반적으로 정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일부 어깨 옷자락 끝부분을 둥글게 표현하여 변화를 준 것이 특징이다. 엄숙하고 장대한 인상을 주는 수연의 불상과 법령의 불상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지만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살펴본 17세기 전반 조각승들의 이러한 특징은 법령의 불상 특징과 대비된다.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통해 살펴본 법령 불상의 특징은 얼굴 표현의 경우 불의 양감을 강조한 부드러운 인상을 하고 있다. 신체는 어깨를 둥글게 표현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려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법의는 두꺼워 신체의 굴곡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옷자락의 요철을 날카롭게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살상의 경우 천의와 장신구-특히 복부의 복갑 등 화려한 장식을 조각에 채용하여 장식적인 요소를 부각시켰는데, 이는 이후 법령의 조각적인 계보를 계승하는 혜희나 조능의 조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다.



1629년, 조각승 현진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33년, 조각승 인균
김제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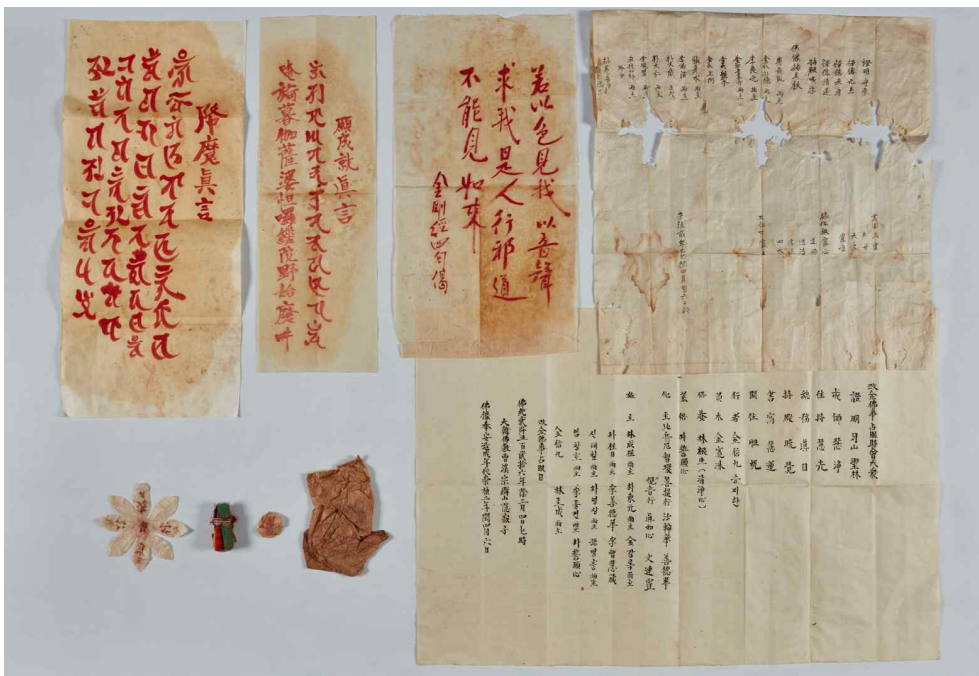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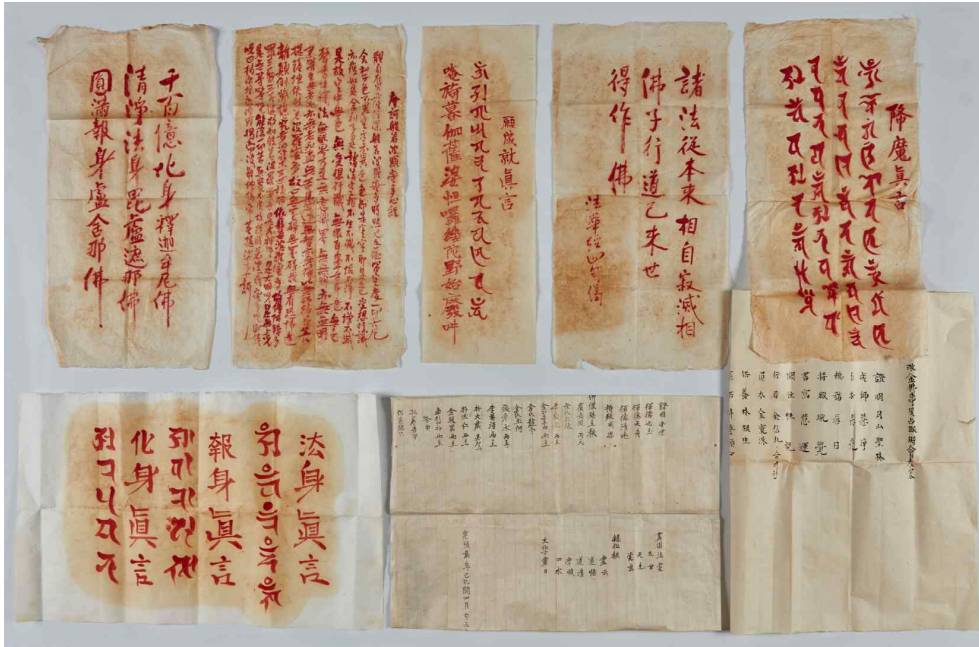
1623년, 조각승 수연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29년, 조각승 법령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기록자료 및 복장유물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내부에서 출토된 복장유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유물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유물

연번	명칭	도판	규격	비고
1	조성기		80.2×56.8	
2	개금불사기		58.8×87.0	
3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60.0×30.0	
4	법신보신화신진언		40.8×65.0	
5	삼신불명호		61.0×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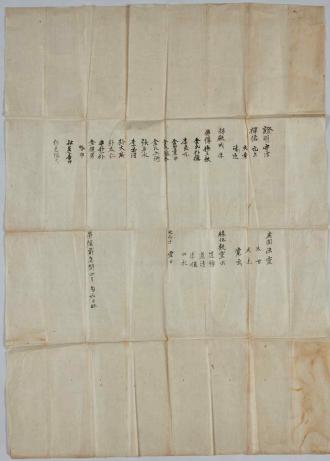
6	법화경사구게		61.0×30.2	
7	원성취진언		58.8×19.4	
8	항마진언		60.0×30.4	

은적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유물

연번	명칭	도판	규격	비고
1	조성기		79.6×56.0	
2	개금불사기		58.8×87.0	
3	금강경사구게		56.6×30.0	
4	원성취진언		58.8×19.4	

5	항마진언		66.0×30.6	
6	팔엽대홍련도		지름 14.6	
7	오보병 및 오방경		1.2×1.2×7.6	

은적사 목조보현보살좌상 복장유물

연번	명칭	도판	규격	비고
1	조성기		93.4×66.8	
2	개금불사기		58.5×87.0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조성기는 삼존상의 내부에서 각 1매씩 출토되었으며, 조성기의 양식과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조선후기 불상의 발원문은 전반부에서 불상을 조성하여 사찰에 봉안하게 된 내력과 더불어 간단한 사찰의 연기(緣起) 등을 언급하고, 후반부에는 불상을 만드는데 참여한 인원들과 시주자들의 명단을 기재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조성기는 보통 전반부에 서술되는 사찰의 연혁, 혹은 첫 줄의 제목 부분에서 드러나는 사찰의 위치나 명칭, 불상의 존명 등 불상과 관련된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조성기의 내용은 증명(證明)부터 시작하여 지전(持殿), 시주질(施主秩), 화원(畫圓), 연화질(緣化秩), 대화사(大化士) 등 불상의 조성과 관련된 인물들의 목록만이 간결하게 나열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불상의 조성시기인 송정2년(1629) 윤 4월 16일 불상 조성을 마쳤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불상 조성과 관련된 인물의 목록을 언급한 발원문 양식은 앞서 언급한 전반부-사찰 연기, 후반부-참여자 명단 형태로 작성된 발원문에서 후반부의 참여자 명단만이 남아있는 양식으로, 이러한 발원문 양식은 조선후기 불상에서 자주 확인되는 발원문 형태이다.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조각승 법령

조각승 법령이 조성한 불상 중 원 봉안처가 확인된 불상은 전라북도 지역 뿐이며, 확인되지 않은 2건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령이 수화승으로 조성한 불상은 1629년부터 1640년까지 총 3건 7점의 불상이 남아있다. 관련기록은 좀 더 빠른 1615년부터 1641년에 걸쳐 나타난다. 가장 시기가 이른 기록은 1615년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조성기(金堤 金山寺 七星閣 獨聖像 造成記)」에 5인의 조각승 중 4위 조각승으로 기재된 것이다.⁴⁾ 이 기록에 등장하는 수화승은 조각승 태전(太顛)으로, 태전은 1601년부터 1635년까지 금산사를 중창한 스님이다.⁵⁾ 현재 기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당 독성상은 현존하지 않아 조각승 태전과 태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법령의 작품을 살펴보기는 어렵다.

법령이 주도적으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시기는 1620년대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1629년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법령이 수화승으로 조성은 첫 번째 불상이다. 이 불사에 참여한 조각승 태감, 천윤, 각현 중 천윤은 <공주 갑사 보장각 목조석가여래좌상>(1640년대 추정) 조성에 수화승인 혜희와 함께 참여했으며,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55) 조성에서 마찬가지로 수화승 혜희와 조력하여 불상을 조각했다. 조각승 혜희는 1640년 군산 불명사의 대대적인 불상 조성 불사에서 수화승 법령과 함께 불상 조성에 참여한 스님으로 법령의 조각 계보를 잇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각현 또한 혜희가 참여한 1640년 군산 불명사 불사에 참여하여 법령의 조각적 영향권 내에서 활동했던 조각승으로 추정된다. 법령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1641년 조성 기록에는 수화승 청현의 다음 순서로 나타난다.

이후 17세기 후반 법령의 조각승 계파는 혜희(惠熙)와 조능(祖能) 두 조각승에 의해 발전하게 된다. 이들은 법령의 작품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조각 특징을 구축하였으며, 전라북도 외에도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상도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4) 「金堤 金山寺 七星閣 獨聖像 造成記」, 1615년(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사지총서』 제8호-금산사지, 아세아문화사, 1982, pp. 215-216).

5) 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 연구」(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 50.

지정가치 및 의의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내부에서 발견된 조성기를 통해 조각승 법령을 중심으로 태감, 천윤, 각현 등이 조성에 참여하여 1629년에 제작하였다.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이목구비를 둘러싸고 있는 뺨과 턱의 살집을 도톰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호 표현은 조각승 법령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조각의 요철이 깊고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옷주름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법령이 수화승으로 조성한 불상은 1629년부터 1640년까지 총 3건 7점의 불상이 남아있는데, 이 중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법령이 수화승으로 조성한 가장 이른 불상으로 법령의 조각적인 특징과 성취를 살펴보기에 충분하다. 17세기 전반 법령의 계보는 이후 법령의 영향을 받은 조각승 혜희나 조능 등 여러 조각승의 활동과 조상을 통해 계승되었다.

1629년 조성된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복장 내에서 출토된 조성기를 통해 정확한 연대 및 제작에 참여한 법령을 비롯한 조각승들의 이름이 잘 드러나 있으며, 진언다라니 등 복장유물이 충실히 남아있다. 또한 법령의 조각적 성취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 의미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하여 보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보존과학 조사 결과

은적사 복장물 지질(紙質)조사 및 분석 : 구조적 특징 관찰과 섬유식별

1.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군산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좌상은 1629년에 조성된 목조 불상으로 현재는 개금되었다.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중앙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보현보살, 왼쪽에 문수보살이 양쪽에서 협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군산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유물 중 지류 유물에 대하여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재질적 특성 및 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구조적 특성 관찰과 섬유식별을 진행하였다. 복장유물을 전체적으로 육안 조사 후 특징적인 유물을 선별하여 세밀하게 조사하였다.



그림 1.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좌상(국가유산청 홈페이지)

2. 분석대상 및 방법

2.1. 분석대상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좌상의 복장유물은 각 존상의 조성기와 개금 불사기, 여러 다라니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물은 모두 낱장 형태이다. 전체 유물을 육안 조사한 결과, 각 존상의 조성기와 다라니로 지질의 종류가 나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특징적인 유물 3점을 선별하고 조사 및 분석하였다. 개금 불사기는 육안 관찰 결과, 근현대 양지로 판별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확한 시료 정보는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유물에 대한 분석 대상 목록

불상명	유물명	분석종류
석가여래좌상	조성기	육안 조사 및 섬유식별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문수보살좌상	조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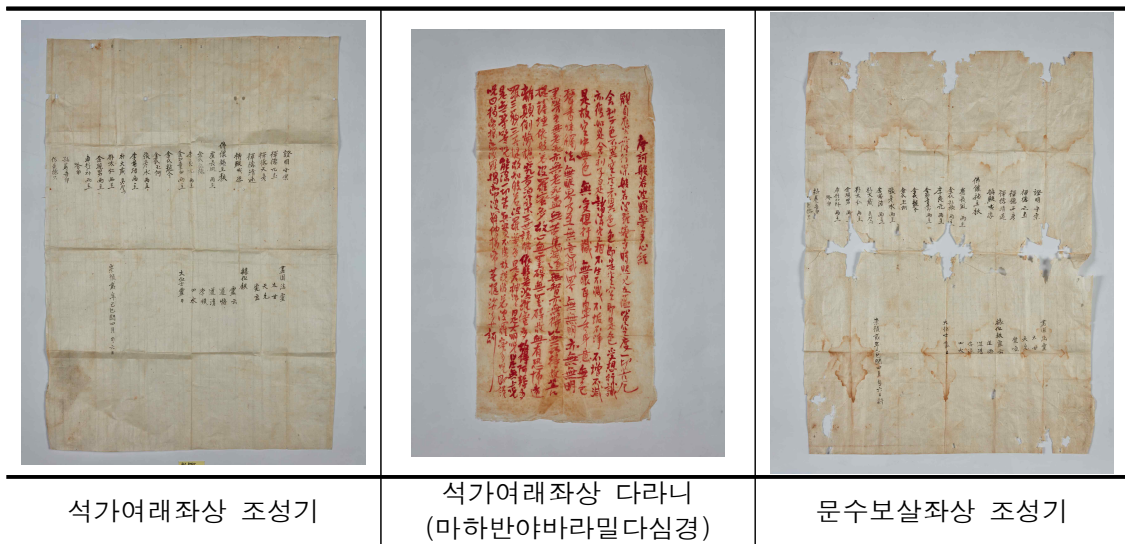


그림 2.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유물 분석 대상

2.2 분석방법

2.2.1 기초조사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과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의 복장유물 지질조사는 종이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 관찰과 현미경 조사, 두께, 발수 및 촉사 간격 측정을 실시하였다. 현미경 조사에는 디지털 현미경(SCALAR, DG-3, JPN)을 사용하여 100배율로 관찰하였다. 두께 측정은 두께측정기(Mitutoyo, Digimatic Thickness Gage, JPN)를 사용하였고 무작위 5곳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발수 측정은 3cm 측정 범위 내에서 조사하였고 촉사 간격 역시 5곳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2.2.2 섬유식별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유물의 섬유식별을 위한 시료 채취는 유물에 물리적 형태 변형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진행하였다. 유물 배면에서 소도구를 사용하여 섬유를 긁는 방법으로 미량의 시료를 확보하였다.

섬유식별 방법은 Graff-C stain 염색법을 사용하였다. 섬유는 그 종류에 따라 물리·화학적 성질이 다르므로 염색시약 처리를 하면 특유의 색으로 발색되고, 이때 발색되는 색 차이와 해부학적 특징을 관찰하여 섬유식별이 가능하다(National Rese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8).

섬유 염색 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증류수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 후 증탕하였다. 불순물이 제거된 섬유를 증류수에서 해리하고 C-염색 용액으로 섬유를 염색한 뒤, 섬유의 고유 발색 상태와 형태학적 특성을 디지털 현미경(Digital microscope, HIROX, USA)으로 100배, 200배, 400배, 600배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를 토대로 섬유의 종류를 판별하였다.

3. 분석결과

3.1 기초조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유물 조사 대상 3점의 지질조사 결과, 조성기 2점은 닥섬유 외발지, 다라니 1점은 닥섬유와 표백펄프가 섞인 근현대 화선지로 추정하였다. 육안 조사 결과 및 현미경 관찰 결과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조성기 2점과 다라니 1점 순서로 정리하였으며, 각 결과에 따른 특징은 아래에 서술하였다.

3.1.1. 형태 조사 결과

전통 한지는 흘림뜨기인 외발지로 섬유 배향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특징으로 가둠뜨기인 쌍발지에 비하여 질긴 특성을 갖는다. 또한 외발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축사 방향으로 종이가 길고, 쌍발지의 경우 발 방향으로 종이가 길게 제작되는 형태적 특징이 나타난다.

조사 대상 중 조성기 2점 모두 육안관찰 결과 크기와 형태가 외발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사방이 재단된 형태이지만 종이의 가장자리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 있으며 거의 온장의 형태에 가까웠다. 이러한 점에서 조성기 2점은 모두 축사 방향(유물 세로)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통 한지인 외발지의 형태로 추정된다.

다라니 1점은 조성기와 달리 축사 간격이 매우 넓고 발수가 촘촘하다. 지질이 매우 얇고 조성기와 비교할 때 황변이 심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전통 한지보다는 선지와 화지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화선지로 추정된다. 다라니의 좌·우 가장자리는 재단되었으나, 상·하 가장자리는 재단되지 않아 온장 당시의 형태가 관찰된다. 상·하 가장자리는 가둠뜨기한 쌍발지에서 주로 보이는 섬유 뭉침이 발견된다. 물과 지료를 흘려보내며 종이를 뜨는 흘림뜨기와 달리 가둠뜨기는 지료가 갇혀 있게 되기에 가장자리에 섬유가 모이기 때문이다.

표 2. 형태 및 크기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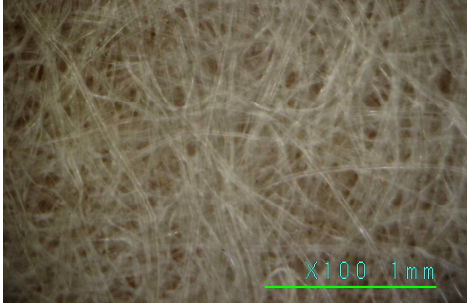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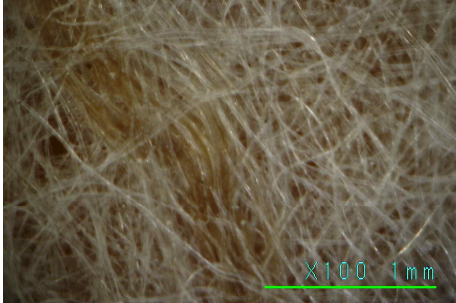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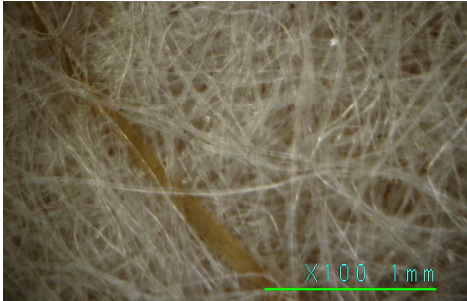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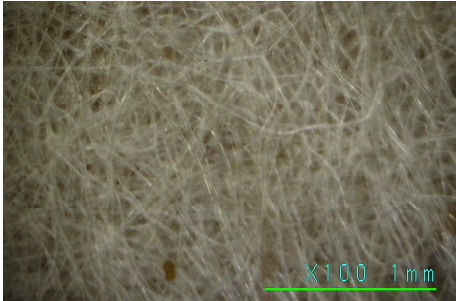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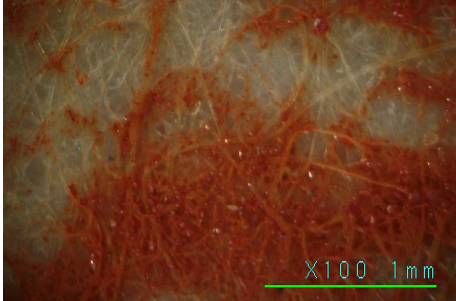
유물명	형태 및 크기 (세로×가로/cm)	축사 간격	발수(발축수)	두께(mm)
석가여래좌상 조성기	날장 80.2×56.8	1.6~1.8	16	0.11
문수보살좌상 조성기	날장 79.6×56	1.5~1.7	16	0.12
마하반야바라 밀다심경	날장	2.5	30 추정	0.06

3.1.2. 현미경 조사 결과

섬유 표면을 디지털 현미경을 사용하여 100배율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조성기 2점은 섬유가 종과 횡 방향이 고루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섬유 광택이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통 한지의 특징 중 섬유의 무배향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달리 다라니 1점은 섬유가 종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어 배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섬유 광택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육안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현미경관찰 사진에서도 조성기와 다라니의 황변 정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 한지에 비하여 선지는 리그닌 함량이 많고 단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황변이 빨리 나타난다. 따라서 다라니는 선지의 일종인 화선지로 추정된다.

표 3.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유물 현미경 조사 결과

유물명	현미경 사진(×100)	
석가여래 좌상 조성기		
문수보살 좌상 조성기		
마하반야바 라밀다심경		

3.2. 섬유식별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유물의 섬유식별 결과, 목조석가여래좌상 조성기와 문수보살좌상 조성기는 닥섬유로 제작된 닥지, 석가여래좌상 다라니(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은 근현대 화선지로 추정된다. 유물별 섬유식별 결과는 아래 사진과 함께 서술하였다.

3.2.1. 석가여래좌상 조성기

섬유 염색 후 정색반응으로 적갈색을 띠었고, 섬유의 마디흔, 투명막 등이 확인되었다. 섬유의 길이와 두께는 각각 7506.63~13018.03 μm , 17.18~25.29 μm 이다. 따라서 장섬유인 닥섬유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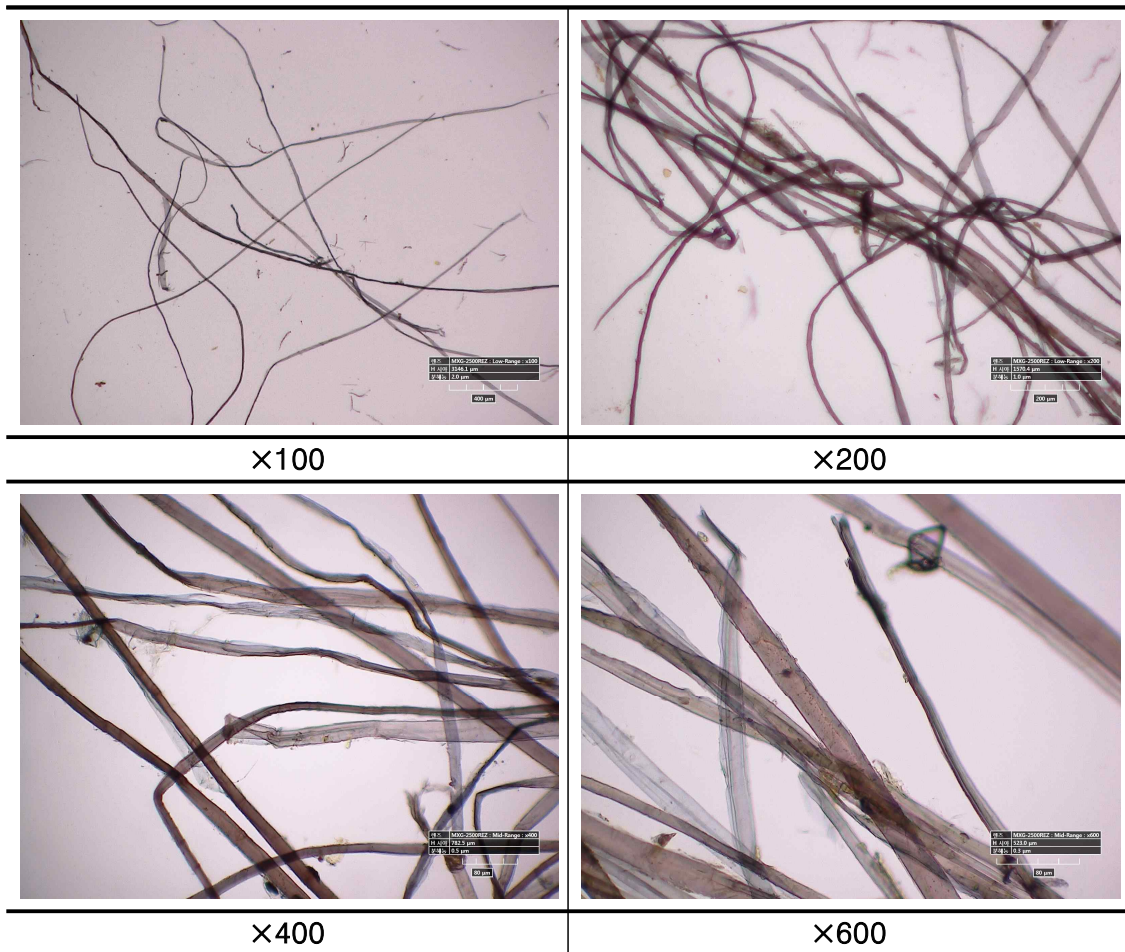


그림 3. 석가여래좌상 조성기 섬유식별 사진

3.2.2. 문수보살좌상 조성기

섬유 염색 후 정색반응으로 붉은색에서 적갈색을 띠었고, 섬유의 마디흔, 투명막 등이 확인되었다. 섬유의 길이와 두께는 각각 7681.05~14632.82 μm , 9.50~32.66 μm 이다. 따라서 장섬유인 닥섬유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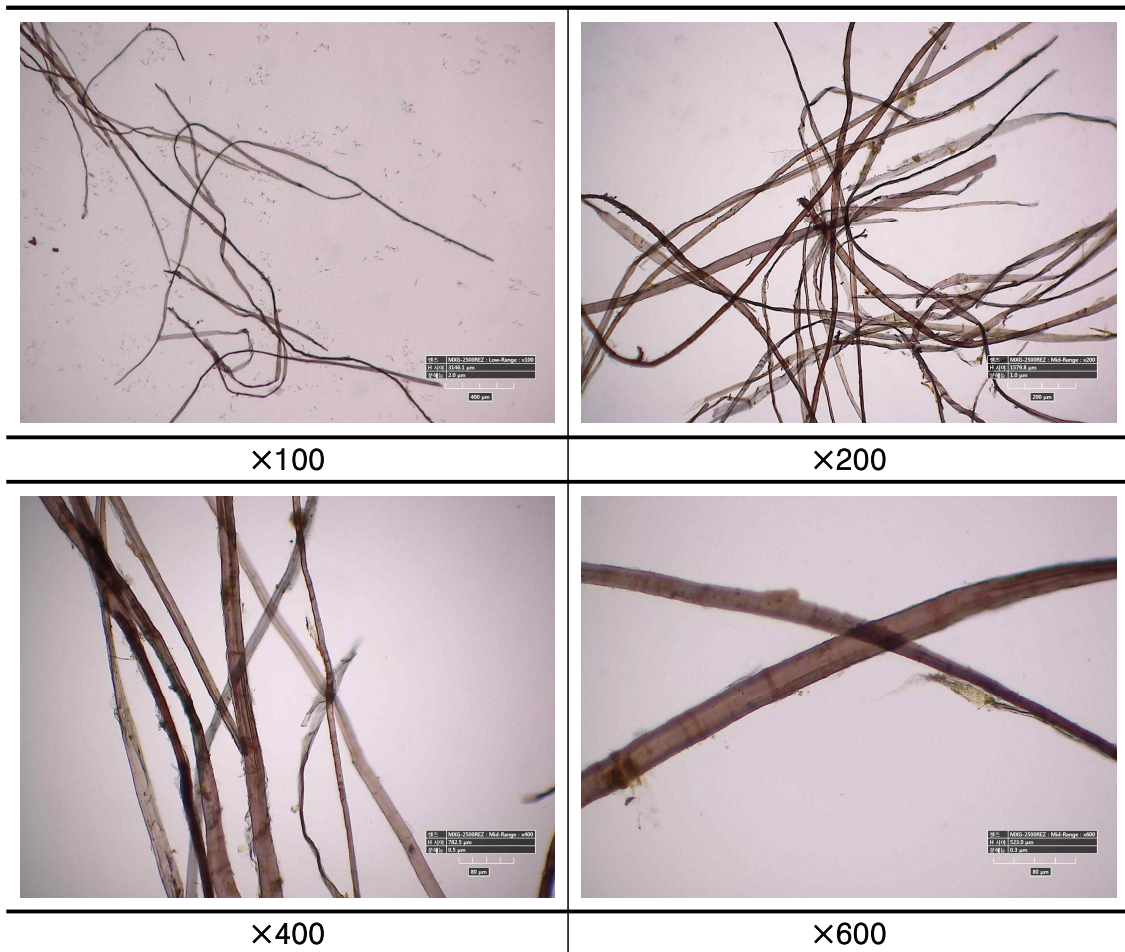


그림 4. 문수보살좌상 조성기 섬유식별 사진

3.2.3. 석가여래좌상 다라니(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섬유 염색 후 정색반응으로 적갈색을 띠는 장섬유의 닥섬유와 회색빛의 단섬유가 혼합되어 나타났다. 단섬유는 활엽수 정색반응 색상 및 도관요소 등 표백펄프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닥섬유와 활엽수 섬유의 길이와 두께는 다음과 같다. 닥섬유는 $6130.08\sim 14815.69\mu\text{m}$, $9.78\sim 23.21\mu\text{m}$ 이다. 활엽수 섬유는 $1628.58\sim 2268.73\mu\text{m}$, $14.38\sim 43.73\mu\text{m}$ 이다. 따라서 장섬유와 활엽수 단섬유가 혼합된 근현대 화선지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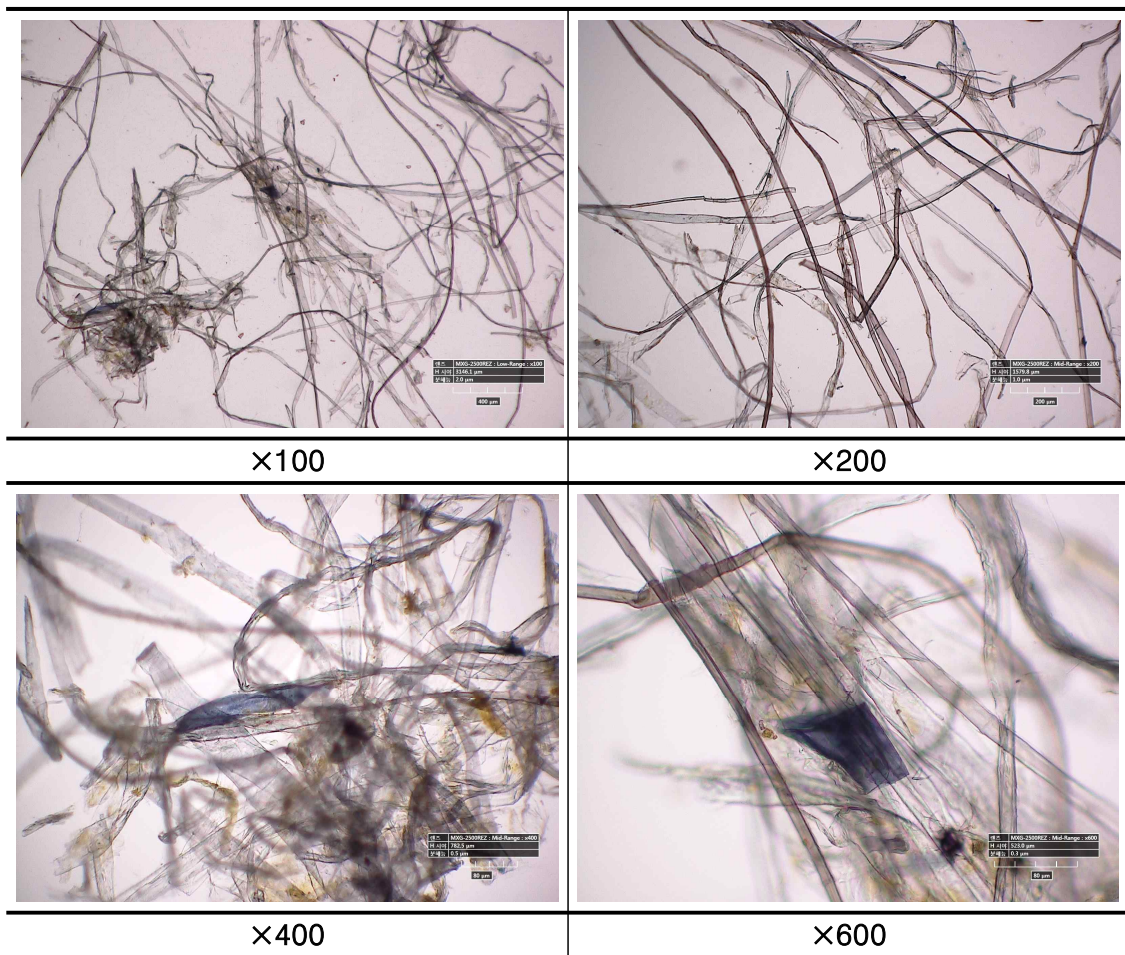


그림 5. 석가여래좌상 다라니(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섬유식별 사진

4. 결론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유물의 지류유물에 한정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조사로 육안조사와 섬유 표면 현미경관찰하여 지질의 형태 및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물을 지질에 따라 분류하고 일부 섬유를 채취하여 섬유식별을 진행하였다. 섬유식별은 Graff-C stain법을 택하여 정색반응을 관찰하고 섬유의 길이 및 두께를 측정하였다.

석가여래좌상과 문수보살좌상 조성기는 축사 방향의 종이 길이(세로)가 발촉 방향(가로)보다 길고 현미경관찰에서 섬유의 배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섬유식별 결과, 모두 장섬유인 닥섬유의 특성을 모두 나타냈다. 정색 반응에서 적갈색을 띠었고, 투명막, 마디, 왜곡 등의 형태가 관찰되었다. 다른 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석가여래좌상 다라니(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은 한지보다 선지나 화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넓은 축사 간격과 촘촘한 발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가둠뜨기한 종의 특징 중 하나인 가장자리 섬유 뭉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성기에 비하여 황변이 심화된 상태였다. 섬유식별 결과, 닥섬유와 활엽수 펄프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닥섬유의 경우 적갈색으로 정색반응이 나타났고, 활엽수 표백펄프의 경우 회색빛과 청색으로 정색 반응을 띠었다. 이 외에도 활엽수의 섬유가 열화되어 마이크로피브릴화가 진행중이며, 섬유 절단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기초조사와 섬유식별 결과를 종합한 결과, 불상의 조성기는 모두 닥섬유로 제작된 외발지로 판단하였다. 석가여래좌상 다라니(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는 닥섬유와 활엽수 펄프가 혼합된 근현대 화선지로 판단하였다.

다라니의 경우, 근현대 화선지로 판단되었으나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이 여러번 진행된 이력을 감안할 때, 불상 조성시 봉안한 복장물이 아니며 개금 당시에 추가 납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군산 은적사 복장유물(조성기 및 기타 지류) 지질조사 중간 결과 보고서

조성기를 중심으로 함께 봉안되어 있던 낱장의 반야심경에 대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육안 관찰, 발실 간격 및 발촉수 조사, 두께 측정, 현미경 조사, 섬유 분석이다. 두께 측정은 디지털 두께측정기(Mitutoyo, Digital thickness, JPN)를 사용하였고, 현미경 조사는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SCALAR, DG-3, JPN)을 사용하여 100배를 관찰하였다.

섬유 분석은 유물의 배면에서 미량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섬유 분석은 Graff-C stain 방법을 사용하여 섬유 동정, 섬유장 및 두께를 측정하고 분석 결과를 첨부할 예정이다.

1. 형태 조사 결과

명칭	형태 및 크기 (세로×가로/cm)	발실 간격	발촉수	두께(mm)
본존불 조성기	낱장 80.2×56.8	1.6~1.8	16	0.11
문수보살 조성기	낱장 79.6×56.0	1.5~1.7	16	0.12
반야심경	낱장	2.5	30 추정	0.06

표 4 . 형태 및 크기 조사 결과

전통 한지는 흘림뜨기인 외발지로 섬유 배향성이 없어 가둠뜨기인 쌍발지에 비하여 질긴 것이 특징이다. 또한 외발지의 경우 발의 방향과 종이의 길이 방향(세로. 길이가 긴 쪽)이 반대이다. 따라서 발실 방향(세로)과 종이의 길이 방향이 일치한다. 쌍발지의 경우 발 방향(가로)의 길이가 길다.

조사 대상인 조성기는 모두 육안 관찰 결과 크기와 형태가 외발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세로 방향의 크기가 모두 가로 방향보다 길었으며, 발실 방향과 세로 방향이 일치하였다. 사방이 일부 재단된 형태였으나 전체 크기가 온자에 가깝게 남아 있었다. 일반적인 쌍발지의 경우 외발지와 반대이기 때문에 발실 방향의 종이 길이가 70cm 이상 되기 어렵다. 따라서 전통 한지인 외발지의 형태로 판단하였다.

2. 현미경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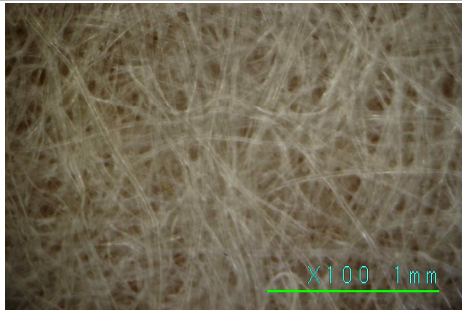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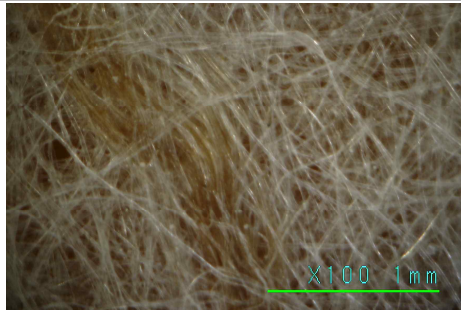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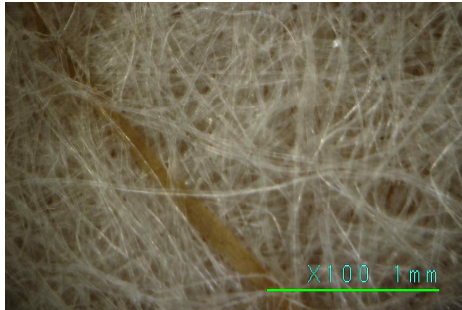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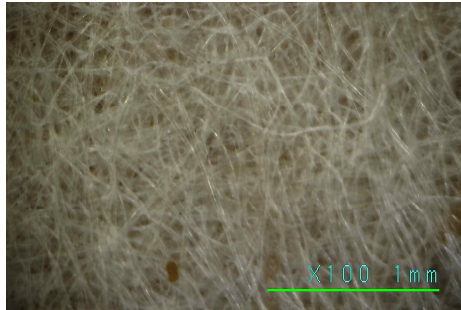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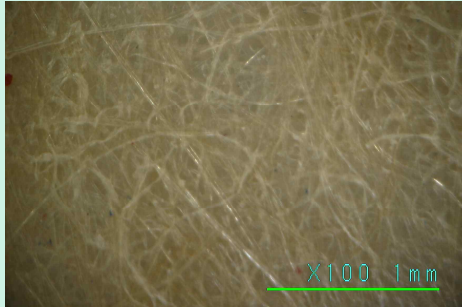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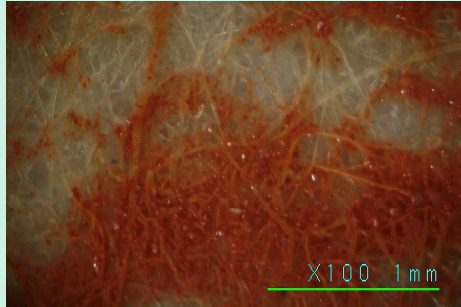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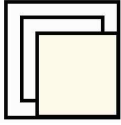
명칭	현미경 사진(×100)	
본존불 조성기		
문수보살 조성기		
반야심경		

표 5 . 디지털 현미경 관찰 사진

외발지의 경우 흘림뜨기를 하기 때문에 섬유가 위에서 아래, 다시 좌우로 섞이는 과정이 반복된다. 따라서 섬유가 짧고 분산되면서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무배향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무배향성 때문에 배향성을 갖는 짚발지에 비하여 질긴 특성을 갖는다.

유물의 디지털 현미경 관찰 결과, 조성기의 섬유 배향성을 보면 종과 횡 방향이 고루 섞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외발지의 특징 중 하나인 섬유의 무배향성을 확인하였다.

시험 평가서



(주)한아카이브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42-2, 104-503

Tel : 000-0000-0000

홈페이지 : www.hanarchive.com

1. 신청인

- 회사명 / 의뢰인 : 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 / 최가람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현궁SK허브 102동 104호
- 접수일자 : 2024.8.6
- 실험일자 : 2024.8.12~2024.8.16

2. 시험 항목

- C 염색 섬유식별

3. 성적서 용도

- 보고서 작성용

4. 실험대상품

- 지류 유물 샘플 3종

의뢰인께서 의뢰하신 지류 샘플에 대하여 섬유식별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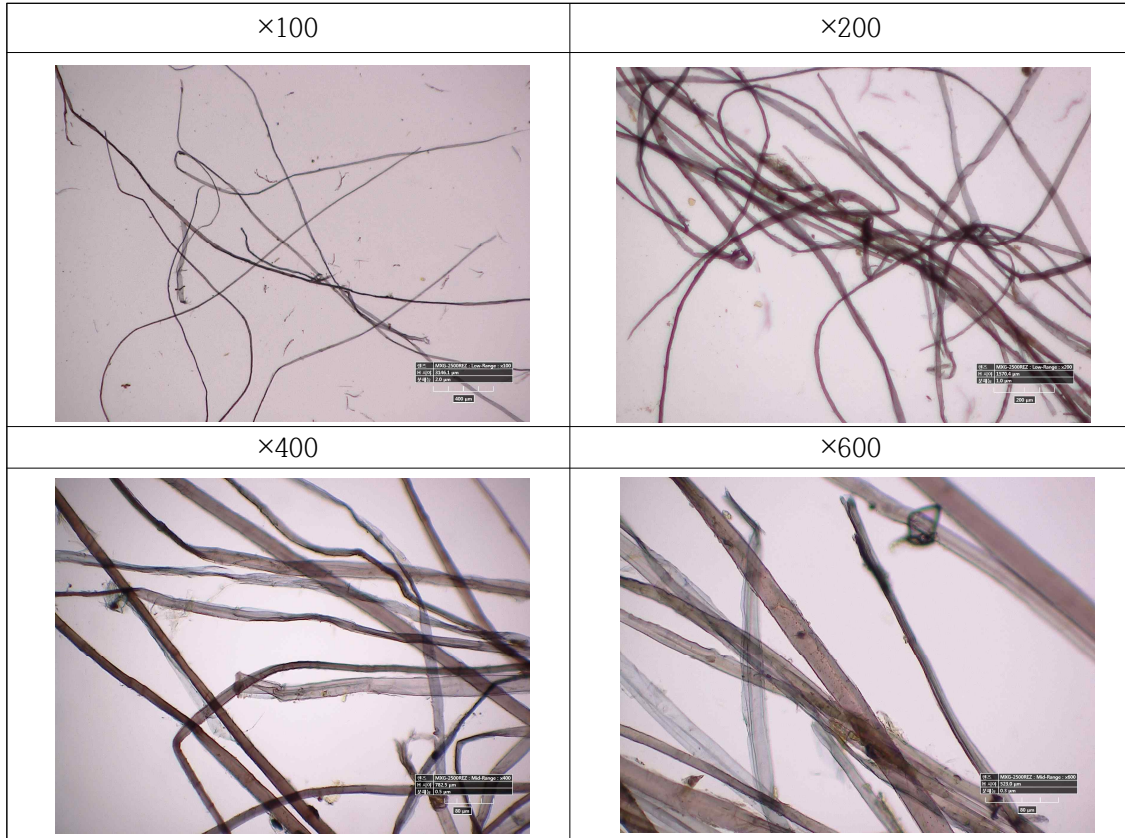
(1) 섬유식별

- ① 섬유식별을 위해 채취된 섬유에 대해서는 증류수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 후, 중탕하여 불순물 제거 작업 실시
- ② 증류수에서 섬유를 해리한 후, C-염색 용액으로 염색한 뒤, 섬유의 고유의 발색 상태와 형태학적 특성을 디지털 현미경(Digital microscope, HIROX, 미국)으로 100배, 200배, 400배, 600배 관찰, 섬유를 동정하고 섬유 두께와 길이 측정

<섬유식별 결과>

A. 섬유염색이 적갈색으로 염색이 되었으며, 섬유의 마디흔, 투명막 등이 확인이 되어 장섬유인 닥섬유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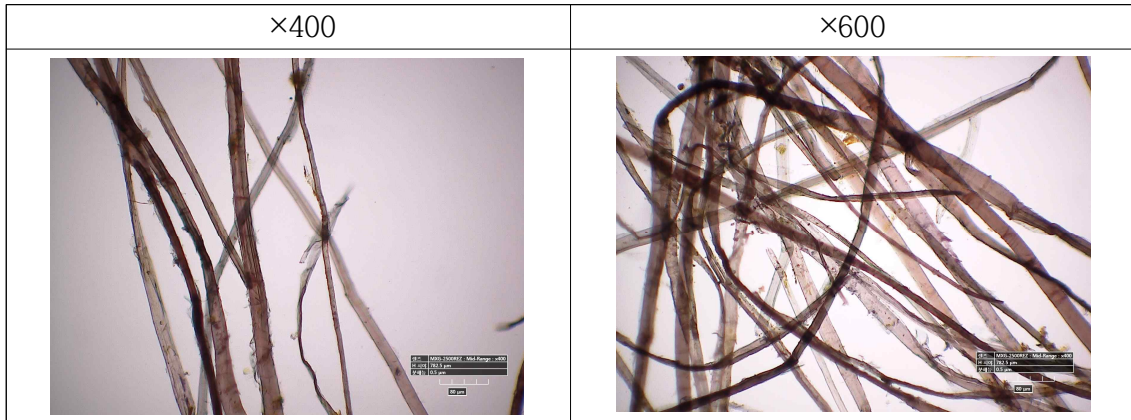
- 섬유 두께 : 17.18 μm ~ 25.29 μm , 섬유 길이 : 7506.63 μm ~ 13018.03 μm



B. 섬유염색이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었으며, 섬유의 마디흔, 투명막 등이 확인이 되어 장섬유인 닥섬유로 추정

- 섬유 두께 : 9.50 μm ~ 32.66 μm , 섬유길이 : 7681.05 μm ~ 14632.82 μ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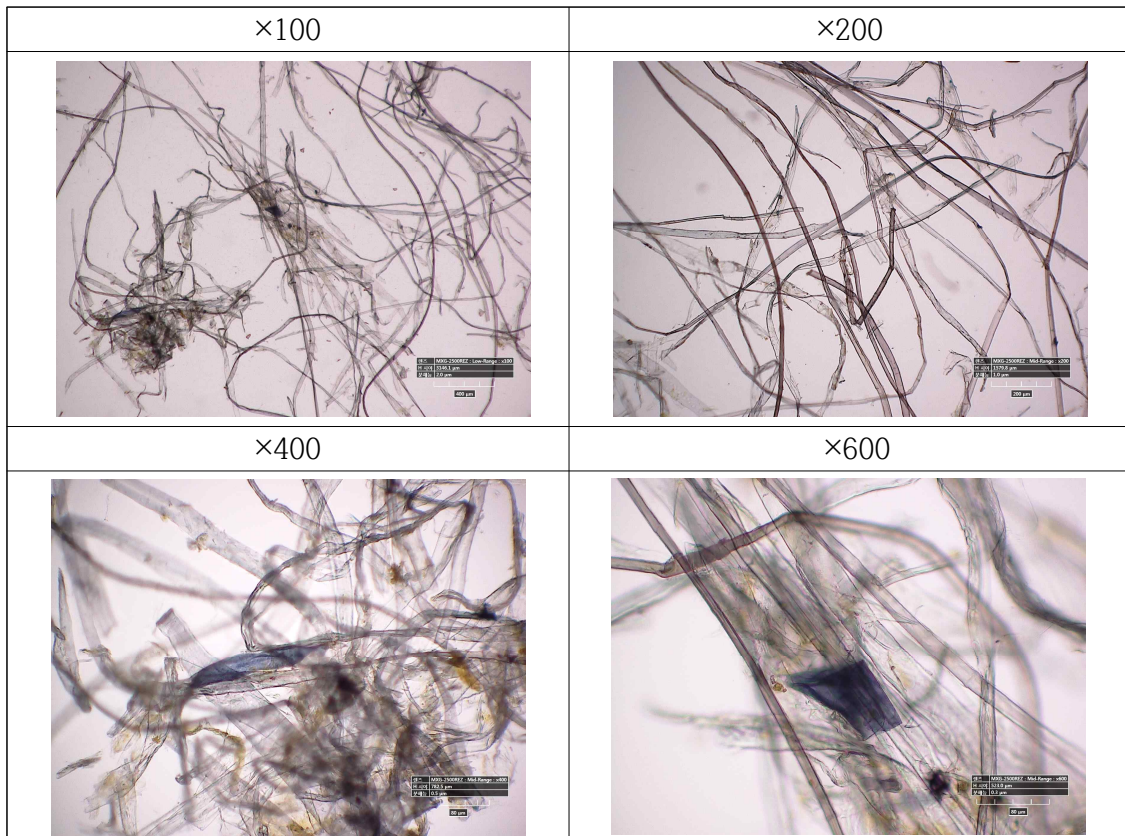




C. 적갈색으로 염색된 장섬유인 닥섬유와 회색빛의 단섬유가 혼합되어 있는 활엽수 표백펄프의 특징이 확인되었으며 근현대의 종이로 추정.

활엽수 섬유의 열화가 심해서 마이크로피브릴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섬유가 많이 절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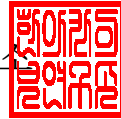
- 닥섬유 두께 : 9.78 μm ~ 23.21 μm , 섬유 길이 : 6130.08 μm ~ 14815.69 μm
- 활엽수 두께 : 14.38 μm ~ 43.73 μm , 섬유 길이 : 1628.58 μm ~ 2268.73 μm



- * 비고 : 1. 본 시험평가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에 한정된 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본 시험평가서는 선전, 홍보, 광고,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2024. 8. 16

(주) 한아카이브 연구소



Processing option : All elements analysed (Normalised)

```
SpectrumIn stats.CMgAlSiKCaTiFeTotalSpectrum 1Yes40.430.835.0147.563.521.270.341.04100.00Spectrum
2 Yes 2 8 . 5 1 1 . 6 4 1 6 . 5 6 3 7 . 5 2 1 1 . 4 5 1 . 0 1 3 . 3 0 1 0 0 . 0 0 S p e c t r u m
3Yes42.411.0610.0329.537.252.684.192.85100.00Max.42.411.6416.5647.5611.452.684.193.30Min.28.510.835.0129.5
33.521.270.341.04
```

All results in weight%

3

사진자료

-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전경)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정면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좌측면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우측면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배면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세부(상호)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세부(상반신)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세부(하반신)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세부(좌측면)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세부(우측면)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세부(배면)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좌측면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우측면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배면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세부(상호)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세부(상반신)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세부(하반신)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세부(좌측면)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세부(우측면)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세부(배면)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세부(배면)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 좌측면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 우측면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 배면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 세부(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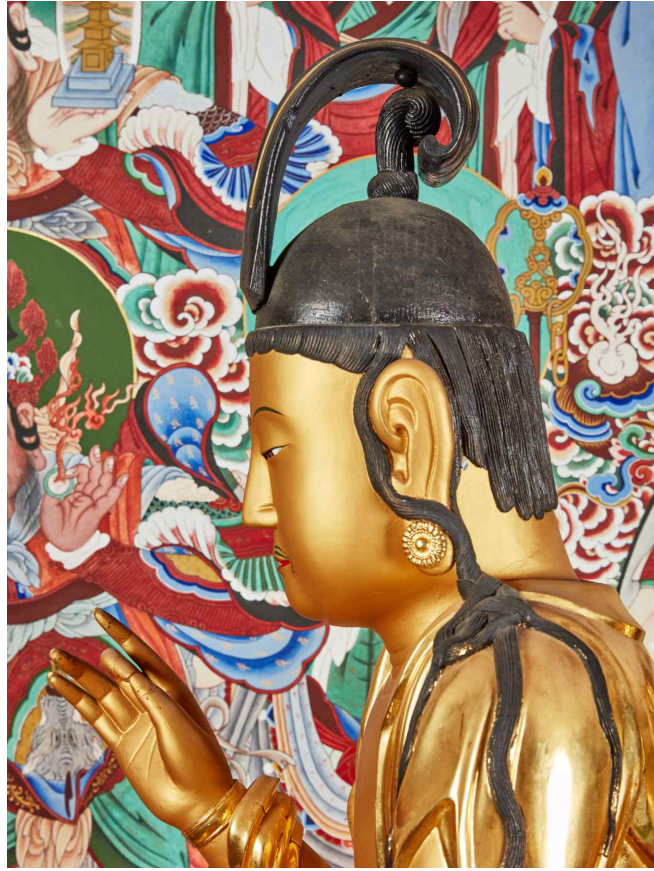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 세부(상반신)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 세부(원손에 걸친 천의자락)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 세부(하반신)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 세부(좌측면)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 세부(좌측면)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 세부(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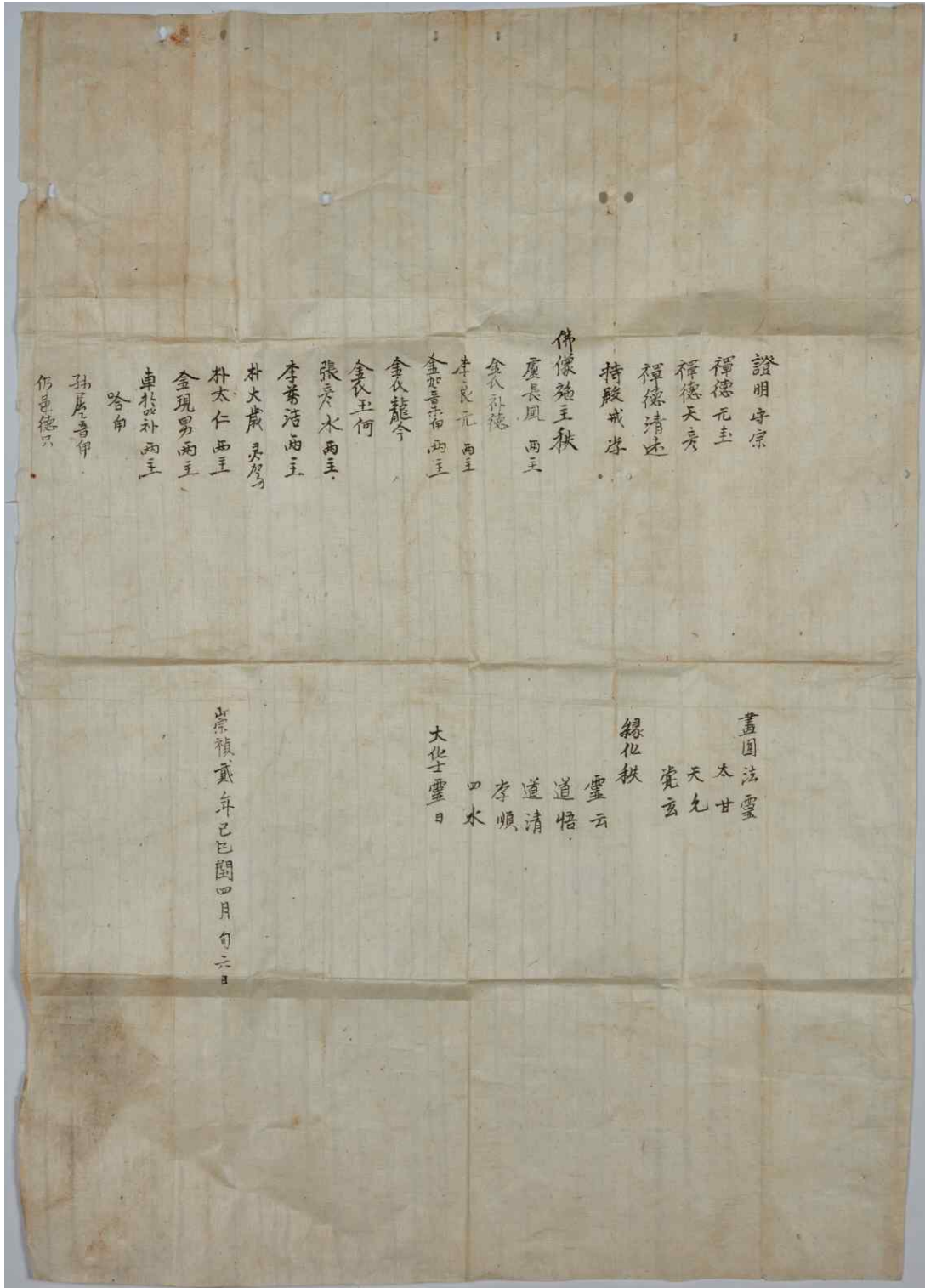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 세부(우측면)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 세부(배면)

•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_ 복장유물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조성기

改金佛事及占眼時會大衆

證明月山聖林

戒師慧淨

住持善光

總務眞日

持殿曉覺

書寫慧運

關住性觀

行者金信九. 金才汗

頁木金寬洙

供養林根生

茶僮朴善願心

北主北元智環

觀音行眞如心

文連豐

施主林成植兩主

朴東元兩主

金강우兩主

朴柱日兩主

李善德華

李智慧法藏

신회철兩主

朴영상兩主

金明호兩主

김창호兩主

李동진兩主

朴善巨願心

金信九

林圭成兩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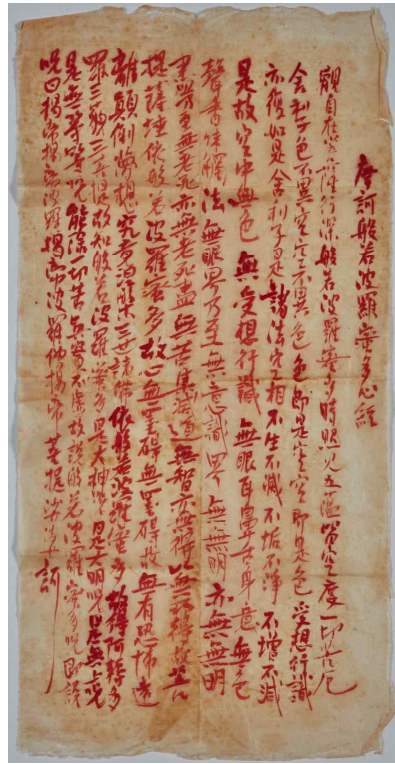
改金佛事及占眼日

佛苑或件五百貳拾六年陰三月四日巳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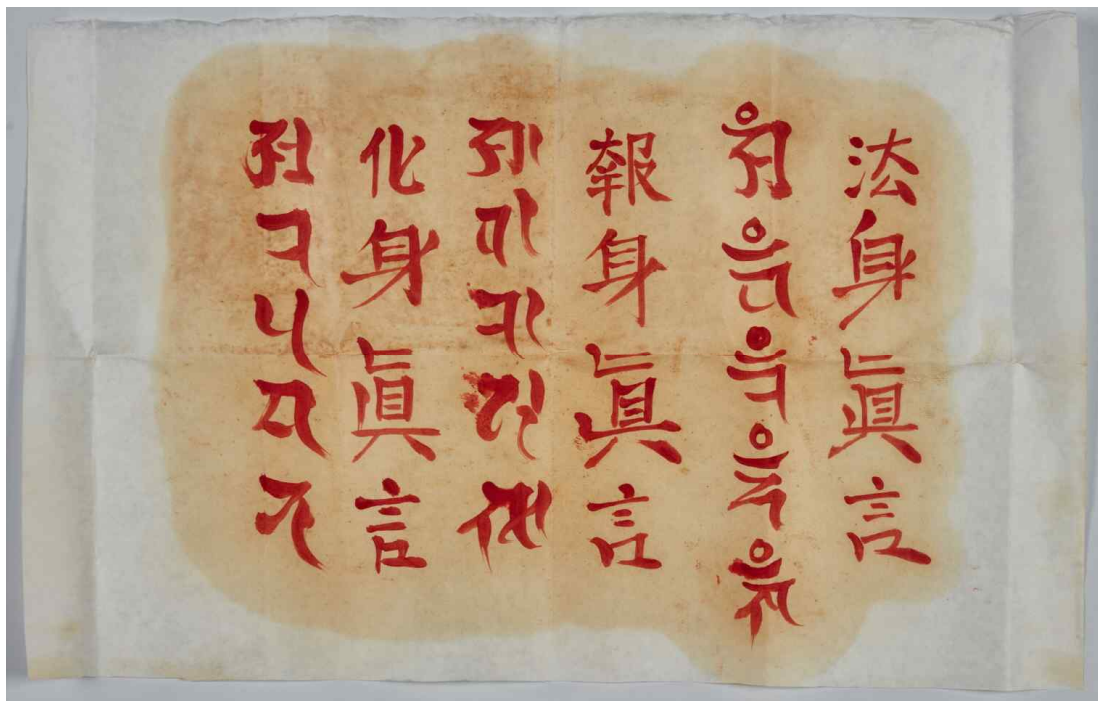
大韓佛教曹溪宗 麟山隱寂寺

佛德奉安造成年庚寅禩二月閏四月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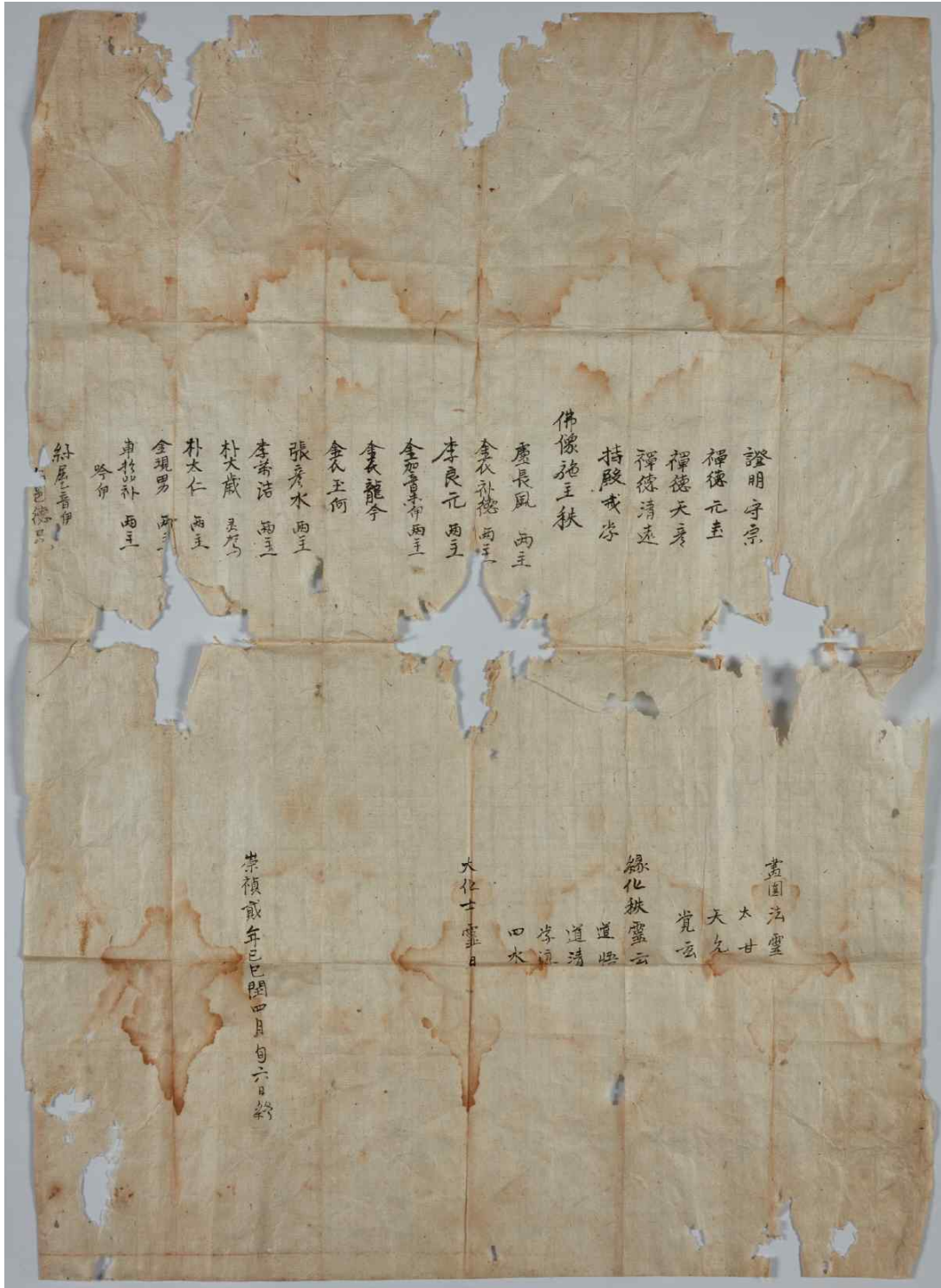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개금불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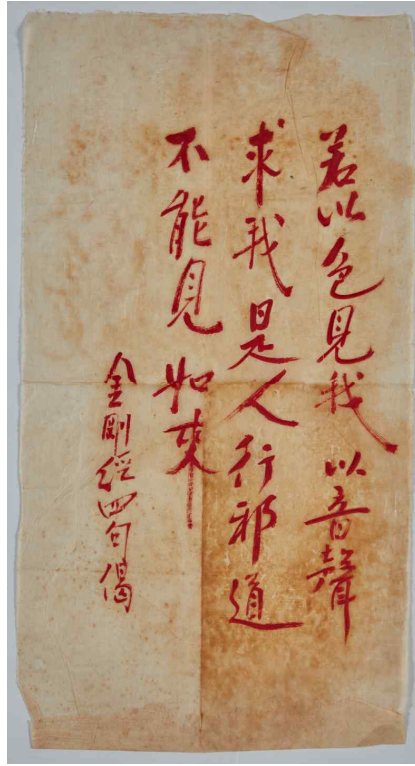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법신진언·보신진언·화신진언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조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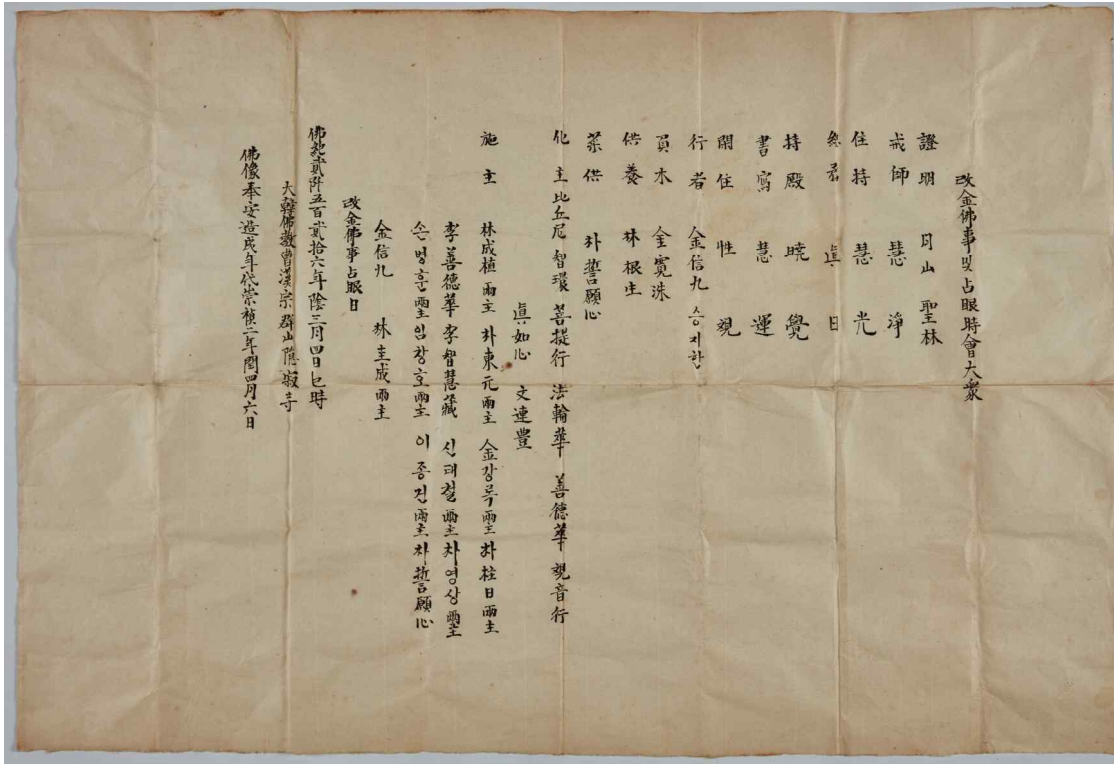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금강경사구계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팔엽대홍련도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_ 오보병, 오방경, 황초폭자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 개금불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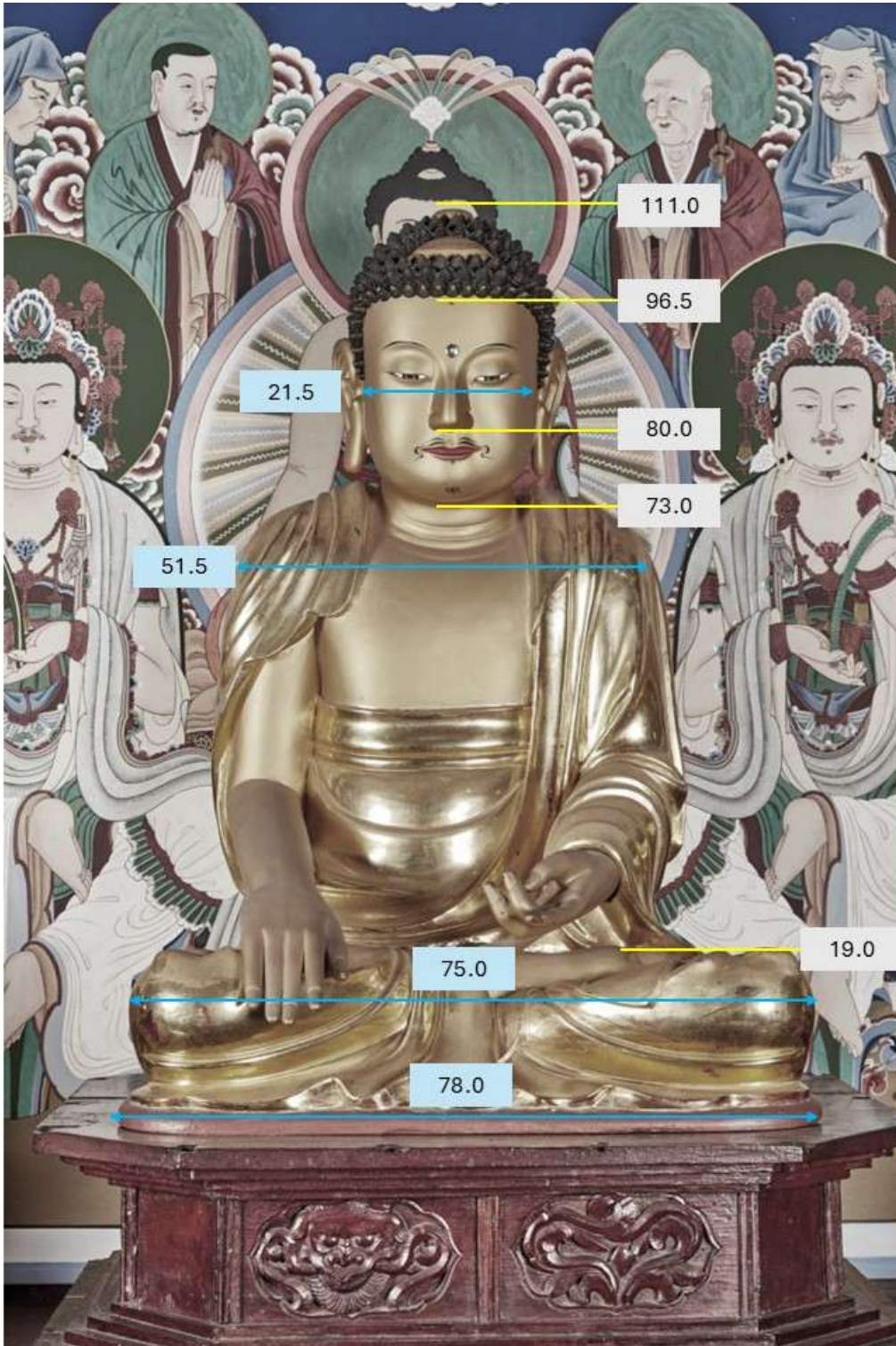


각 존상 조성기 보관 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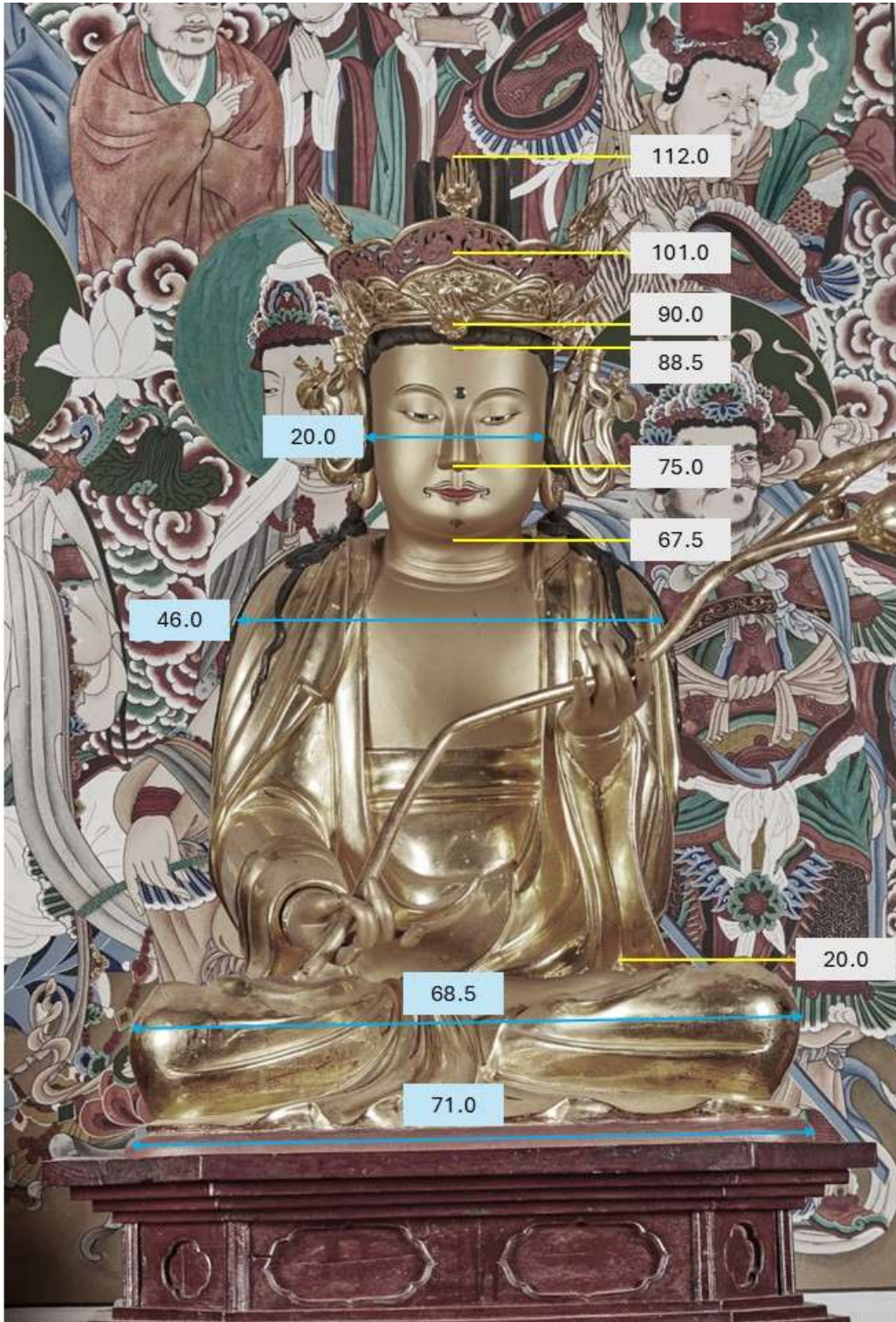
4

도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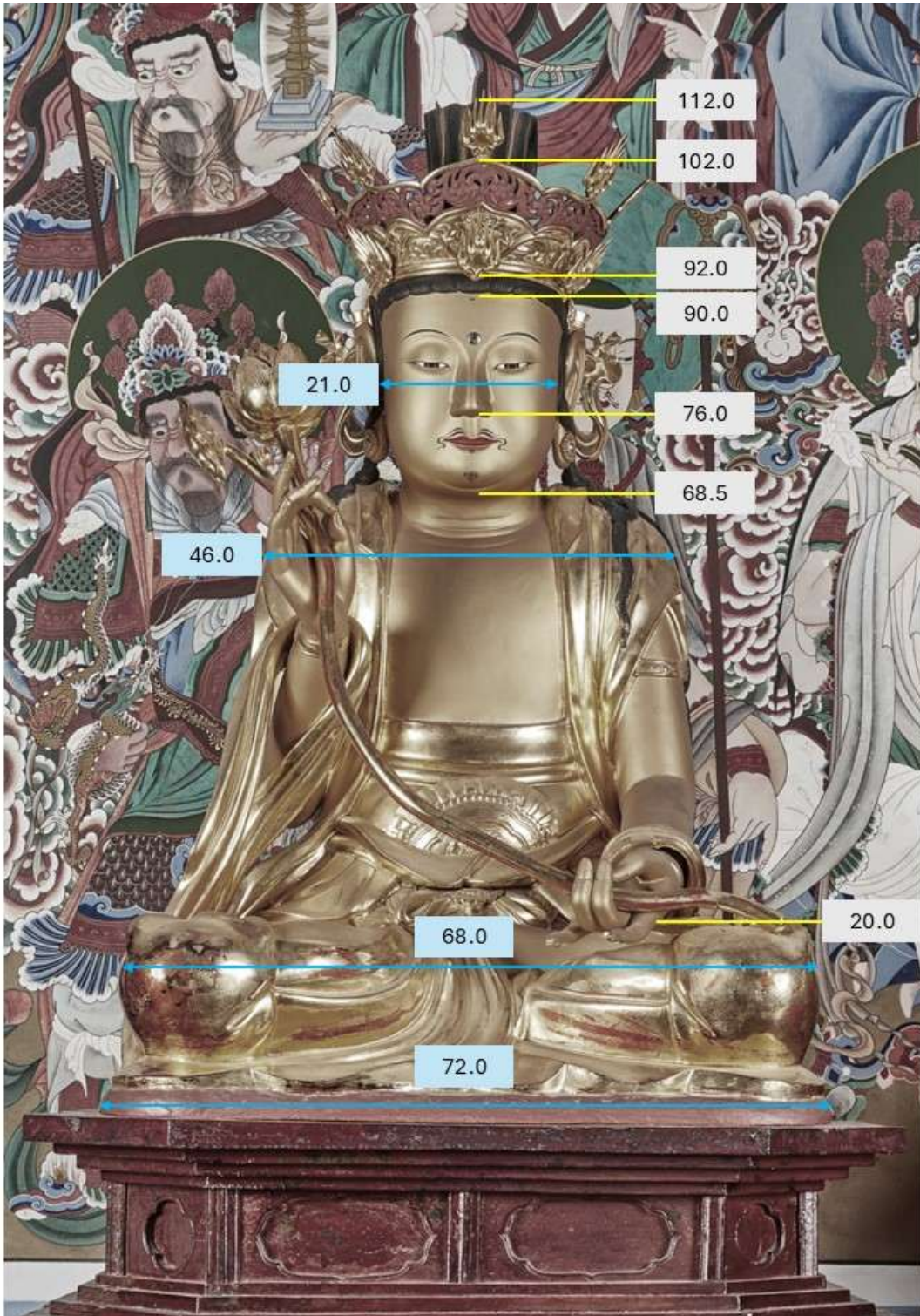
•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 은적사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 은적사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5

학술·고증자료

•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조성발원문

證明 守宗
禪德 元圭
禪德 天彦
禪德 清遠
持殿 戒学

佛像施主秩
盧長風 兩主
金氏补德
李良元 兩主
金聶未伊 兩主
金氏龍今
金氏玉何
張彦水 兩主
李萬浩 兩主
朴大歲 灵駕
朴太仁 兩主
金現男 兩主
車崧补 兩主

哈伊
孫居乙音伊
仍邑德只

畫圓 法靈
太甘
天允
覺玄

緣化秩 靈云
道悟
道清
学順
四水

大化士 靈日

崇禎貳年己巳閏四月旬六日

•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좌상(본존) 개금원문

改金佛事 및 占眼時會大衆

證明 月山聖林

戒師 慧淨

住持 慧光

總務 眞日

持殿 曉覺

書寫 慧運

閑住 性觀

行者 金信九·승지한

負木 金寬洙

供養 林根生(淸淨心)

茶供 朴誓願心

化主 比丘尼 智環 菩提行 法輪華 善德華

觀音行 眞如心 文連豊

施主 林成植 兩主 朴東元 兩主 金강복 兩主

朴柱日 兩主 李善德華 李智慧藏

신태철 兩主 朴영상 兩主 손병훈 兩主

임창호 兩主 李종건 兩主 朴誓願心

金信九 林圭成 兩主

改金佛事 및 占眼日

佛紀貳阡五百貳拾六年陰三月四日巳時

大韓佛教曹溪宗君山隱寂寺

佛像奉安造成年代崇禎二年閏四月六日

• 은적사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조성발원문

證明 守宗

禪德 元圭

禪德 天彦

禪德 淸遠

持殿 戒学

佛像施主秩

盧長風 兩主

金氏 補德

李良元 兩主

金聳未伊 兩主

金氏 龍今

金氏 玉何

張彦水 兩主

李萬浩 兩主

朴大歲 靈駕

朴太仁 兩主

金現男 兩主

車齡 補 兩主

哈伊

孫居乙音伊

○邑德只

畫圓 法靈

太甘

天允

覺玄

緣化秩 靈云

道悟

道淸

学順

四水

大化士 靈日

崇禎貳年己巳閏四月旬六日終

• 은적사 목조문수보살좌상(좌협시) 개금원문

改金佛事 占眼時會大衆

證明 月山聖林

戒師 慧淨

住持 慧光

總務 眞日

持殿 曉覺

書寫 慧運

閑住 性觀

行者 金信九·승지한

負木 金寬洙

供養 林根生(淸淨心)

茶供 朴誓願心

化主 比丘尼 智環 菩提行 法輪華 善德華

觀音行 眞如心 文連豊

施主 林成植 兩主 朴東元 兩主 金강복 兩主

朴柱日 兩主 李善德華 李智慧藏

신태철 兩主 朴영상 兩主 손병훈 兩主

임창호 兩主 李종건 兩主 朴誓願心

金信九 林圭成 兩主

改金佛事 占眼日

佛紀貳阡五百貳拾六年陰三月四日巳時

大韓佛教曹溪宗君山隱寂寺

佛像奉安造成年代崇禎二年閏四月六日

• 은적사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조성발원문

證明 守宗

禪德 元圭

天彦

清遠

持殿 戒学

佛像施主秩

金氏 补德

李良元

金 簪未伊

金氏 龍今

金氏 玉何

張彦水

李萬浩

朴大歲

朴太仁

車 齡补

金現男

哈伊

孫居乙音伊

仍邑德只

畫圓 法靈

太甘

天允

覺玄

緣化秩 靈云

道悟

道清

学順

四水

大化士 靈日

崇禎貳年己巳閏四月旬六日終

• 은적사 목조보현보살좌상(우협시) 개금원문

改金佛事 및 占眼時會大衆

證明 月山聖林

戒師 慧淨

住持 慧光

總務 眞日

持殿 曉覺

書寫 慧運

閑住 性觀

行者 金信九·승지한

負木 金寬洙

供養 林根生(淸淨心)

茶供 朴誓願心

化主 比丘尼 智環 菩提行 法輪華 善德華

觀音行 眞如心 文連豊

施主 林成植 兩主 朴東元 兩主 金강복 兩主

朴柱日 兩主 李善德華 李智慧藏

신태철 兩主 朴영상 兩主 손병훈 兩主

임창호 兩主 李종건 兩主 朴誓願心

金信九 林圭成 兩主

改金佛事 占眼日

佛紀貳阡五百貳拾六年陰三月四日巳時

大韓佛教曹溪宗君山隱寂寺

佛像奉安造成年代崇禎二年閏四月六日

• 참고문헌

『造像經』

문명대, 「17세기 전반 조각승 현진파의 성립과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연구」, 『지장암』(한국미술사연구소, 2010).

문명대, 「칠보사 대웅전 1622년 작 왕실발원 목 석가불좌상과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43(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

송은석, 「17세기 조선왕조의 조각승과 불상」(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전공 박사학위논문(2007)).

이선용, 「한국 불교복장의 구성과 특성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18).

고승희, 「용인 화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연구」, 『화운사 약사·아미타불좌상』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총서 43(한국미술사연구소, 2020).

고승희,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유물 연구」, 『강좌미술사』60

6

보존 정비·활용계획

보존 · 관리계획

[기초조사]

- 1)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성과 조사
- 2)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정밀조사 및 구조안전점검 실시
- 3) 군산 은적사 대응전 보존환경조사 실시

[학술조사]

- 1)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조각적 특징 고찰
- 2)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존상태 조사
· 대상문화유산 보존 방안 및 향후 보수 관련 검토사항 제시
-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 관리
· 정밀 안전진단을 통한 수리 및 보존 정비계획 수립

활용계획(안)

문화유산의 활용가치와 사회적인 효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유산 활용 계획 및 방안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군산시의 관광상품과 연계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지역문화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1) 군산 은적사 대응전과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교육·홍보

· 군산 은적사 문화유산 가치 전승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활용

군산 은적사 대응전과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오랜 세월 은적사에 자리잡고 있었던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불상과 관련된 기록자료, 불상 복장유물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사찰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이러한 인문학적, 과학적 조사 내용들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 ‘대웅전이라는 불전의 재발견

대웅전은 기존의 불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로 하여금 일반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 구상이 필요하다. 석가여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인 대웅전을 부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일반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조성되어 은적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문화재로서, ‘은적사’라는 공간에 오랜 시간 주석해온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웅전을 속세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을 만나 심신의 안정을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

2) 군산 은적사 관련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개발

최근 들어 가장 효과적인 문화재 활용 방법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특정 사찰이나 문화재에 얽힌 설화나 이야기거리들을 부각시키는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유산의 활용은 관람자로 하여금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스토리텔링’은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역사문화자원 활용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8년부터 문화재청이 주관 및 시행하고 있는 생생문화재사업을 살펴보면,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보존’이라는 목표에 걸맞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군산 은적사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최근의 문화재 활용은 직접적인 체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다. 은적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사찰의 정신유산과 가치를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통산사문화재에 깃든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그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있다. 또한 전통사찰의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통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군산 은적사에서 개발 추진 가능한 주요 체험 및 프로그램

- 은적사 문화유산 탐방
- 사찰 힐링길 산책
- 사찰 다도 체험
- 은적사의 건축학적 가치 발견
- 소원등 만들기
- 사찰에서 만드는 오색경단
- 사찰 보물찾기
- 은적사 앞마당 놀이터
- 주지스님과의 토크 콘서트
- 은적사의 문화유산 따라 만들기
- 전래놀이 체험
- 사찰 시낭송
- 전통 등 만들기 체험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인문학 및 보존과학 조사 결과보고서

발행자 :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

발행일 : 2024. 08.12.

본 자료의 저작권은 군산시에 있습니다.
